“교리만 배운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

영남권 불교대학, 심리상담 · 무용 등 전공 확대 ‘눈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평소 사찰에서 신도들의 상담을 자주 해주는 A씨(58).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싶어도 대학원을 가기엔 부담스럽고 학비도 비싸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대학에서 불교상담학을 전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배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찰에서 꽃꽂이 봉사를 하는 B씨(36). 불단 장엄에 어울리는 전문 꽃꽂이를 불교대학에서 배워 봉사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즐기고 있다.

불교대학을 흔히 불교교리를 배우러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에 따라 불교대학도 단순 교리를 넘어 사회문화에 대한 전문 강의를 마련하면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에 위치한 불교대학은 불자들을 위한 불교문화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봄 학기를 준비 중이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학장 경선)은 금정불교상담대학을 운영한다. 금정불교상담대학은 불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상담대학 학기를 이수하면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 금정불교상담대학은 시대 흐름에 맞춘 전문상담가 양성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정불교상담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자살예방상담지도사, 명상전문지도사,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지도사, 가정상담지도사 등 더욱 체계화 된 전문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은 “불교는 신행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진다. 현재 사회문제 원인이 되는 인터넷 중독, 관계 단절, 핵가족화 등으로 감정조절 장애, 가정 파탄, 성폭력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님들의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상담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불교상담대학은 불교 관점



영남권 불교대학들이 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를 신설 · 운영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지난해 금정불교상담대학에서 실시한 자살예방상담 교육 사진.

전문강의로 역량 키우고
자격증 응시 기회 부여
졸업 후 사회활동 연계도
신행과 취미 둘 다 만족

계해 상담봉사 역할을 확대하고 불교전문상담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 강사진으로는 김경일 교수(동국대), 자목 스님(동국대), 박재현 교수(동명대) 등이 참여하며, 더 많은 전문 교수진도 확보할 계획이다. 기본과정은 2학기 1년 과정(1학기당 4개월)으로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이 진행된다. 교과목은 △명상과 심리치료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전화상담 실습 △경전의 이해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유식상담 △초기불교와 상담 △학습심리학 △긍정심리학 △면접상담실습 등 불교심리치료와 상담을 바탕으로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개론 수업을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3월 16일까지이며 범어사 종무소 및 원주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51)866-7277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무용학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불교무용 전수와 이해를 돕고 근력, 지구력, 골다공증을 예방해 건강도 책임지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주부뿐 아니라 유아와 청소년도 참가 가능하다. 학생반은 전문 강의가 제공돼 예술계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도 배울 수 있다. 유아 및 초등부를 위한 수업은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4시이며, 중고등부 수업은 수 · 목 ·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주부반은 화 · 목 오후 1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풍수학과, 장례지도사학과, 수화과, 불교문화학과, 의식학과 등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과가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2017년에 신설된 불교문화학과는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전문 불교문화포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에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 등록이 정식 결정 돼, 부산불교교육대학 불교문화학과를 수료하는 모든 수강생들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 응시 기회를 받는다. 또 장례지도사 국가공인자격증 응시 자격도 가능하다. 원서는 합동 입학식인 3월 8일까지 접수 받는다. (051)711-0700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혜원)도 새롭게 불교무용반을 신설한다. 불교 무용반은 3월 12일 월요일 개강하며 매주 월 · 금요일 오후 2시 주2회 진행된다. 강사는 현숙희 나무불교무용단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불교 꽃꽂이반도 운영한다. 불교꽃꽂이반은 3월 12일 개강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강의한다. (052)266-3318

행복한 아이 만드는 예비부모 교육

동련 사무실 이전 개소… 3월 부부템플스테이 마련

동련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가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 동련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가정 세우기에 앞장서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사단법인 동련 어린이불교연구소(이사장 신공)는 2월 7일 부산 동래구 지역에 새롭게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련은 “행복한 결혼과 올바른 가족 가치관 확립으로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 프로그램으로 ‘삼천년생을 지나 우리가 만났습니다’ 템플스테이를 3월 3~4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흥법사에서 마련한다. 대상은 교제중인 미혼남녀와 예비부부, 신혼부부이며 선착순 20명(10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과 상대 커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결혼관 및 결혼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결혼과 가족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만들기 △의사소통 다루기 △부부갈등 대처법 △분노조절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한 동련 임직원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어린이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기 △사랑 만들어가기 등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최미선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 사업을 주도하며 행복한 어린이를 위한 환경과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알았다”며 “행복한 가정, 즉 건강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바른 사고를 갖게 된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새로운 장소에서 불교계 대표 어린이 포교 단체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051)864-456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宗 · 民 · 官, 밀양 참사 희생자 넋 위로

밀양시 합동위령제… 밀양사암聯 추모의식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가 엄수됐다.

밀양시는 2월 3일 합동분향소가 있는 밀양문화체육관에서 화재 참사 희생자 40명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위령제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각 종교가 천도 및 추모의식을 진행했으며, 불교는 밀양사암연합회가 주관해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체육관에는 유가족, 시민 1천명이 참석했으며, 위령제가 엄수되는 동안 함께 애도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추도사에서 “불귀의 객이 되신 분들은 밀양시민이자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 이웃이었다”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밀양과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킨 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도정 책임자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이 땅 위에 다시는 이런 황망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인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밀양 화재참사 합동위령제에서 밀양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추모의식을 올리고 있다.

유가족 대표로 나선 김성환 씨는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곁에 오래 머물면서 해드리고 싶은 것이 더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스럽기 한량없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밀양을 화합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세종병원 의료진 의사 민현식 씨, 간호사 김점자 씨 그리고 간호조무사 김라희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어 “화재 현장에서 구조에 도움을 준 시민, 화재진압 ·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 신속한 장례지원을 한 밀양시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불필요한 책임추궁은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지난달 1월 26일 발생한 참사로 환자, 병원 의료진 등 40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밀양=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비원 정인 스님 설 앞서 경로잔치

8000만원 후원물품 나눠

연꽃마을 자비원 정인 스님이 설 명절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 15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2월 6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열린 경로잔치에는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추천한 어르신들과 소담불교박물관장 법성 스님, 진안 연화사 법화스님, 수 한방병원 임선영 원장, 이창승 르윈호텔 회장, 덕진구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로잔치는 트로트 가수 오은주, 판소리 명창 안선희, 박영원, 아리랑 예술단의 문화공연에 이어 후원물품 전달식이 열렸다.

정인 스님은 “경로잔치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쓸쓸하게 명절을 맞아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쌀과 라면, 건강보조식품, 의료용품 등 8,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